

	보도자료 □□□□□□□□□□		보도 시점		'06.3.25(토)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05.3.24	매 수
과학기술부	담당	원자력국	과 장	편경범	02)2110-3670	
정책홍보 담당관실		방사선안전과	사무관	조인묵	02)2110-3671	

방사선원 사고대비 예방안전체계 구축

- 방사선원 위치추적부터 사고 대응까지 -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金雨植)는 GPS를 이용하여 방사선원의 도난, 분실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06.1월 비파괴검사장비 889대에 GPS 부착완료), 아울러 방사능오염사고 발생시에도 현장의 방사선안전전문가를 신속히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1999년 울산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업체의 방사능오염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오염사고는 피해의 최소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 체계는 사고발생 접수후 현장도착까지 수시간이 걸리므로 초기 단계의 조치와 기술지원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취약시간대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각지에 분포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2005년부터 『방사선원사고대비 예방안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05년도에는 방사선 이용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따라 전국을 13개 권역으로 나누고 총 146명의 권역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권역별 전문가와 SMS와 e-mail 교신 수단을 마련하는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였다.

- 실제로 지난 3월 13일 울산에서 발생한 비파괴검사기 분실사건시 안전기술원 전문가가 현장에 파견되기 전에 사건현장의 지역전문가가 현장 지원을 하여 검사기의 조기회수에 도움이 된 바 있다.
- 금년에는 지역전문가, 지역방재기관(시·군·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초기대응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가상 시나리오를 개발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실제상황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부, 지역방재기관, 사업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방사선원사고대비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향후 동사업이 완료되어 체제가 갖추어지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져서 자칫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참고 : 대표적 방사능오염사고사례

- '87년 브라질에서 방치된 치료용 방사선조사기가 파손되어 광역오염사고로 발전(4명 사망, 11만여명 병원 치료)
- '99년 울산 비파괴검사업체 방사선오염 사고시 방사선안전전문가 동원이 지연되어 사고 수습 및 안정화가 지연된 사례가 있음
 - 한수원(고리/월성)의 방사선안전전문가가 오염사고 수습에 자발적으로 지원
- '04년 5월 미국의 95번 고속도로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액체가 누출되어 약 8 km 고속도로의 아스팔트를 재포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